

題號 변경 特輯

당뇨병은 하나의 만성전신성(慢性全身性)질환으로 두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. 첫째는 3대영양소인 당질, 지방 및 단백질의 대사이상(代謝異常)을 일으키며 둘째는 혈관의 구조(構造)와 기능(機能)의 장애를 가져온다. 따라서 발병 초기에는 다음, 다뇨, 다식, 피로감 같은 대사장애로 오는 증상

안에 들어온 당질이 피속에 쌓였다가(高血糖)쓰이지 못한 채 몸밖으로 배설된다(糖尿). 그 대신 몸안의 지방이 많이 동원되어(瘦弱, 體重減少) 피속에 들어오게 된다(高脂血症). 이 정도가 심해지면 산혈증(酸血症)을 일으켜서 생명을 위협하는 당뇨병성 혼수(昏迷)를 일으키며, 또한 고지혈증이 오래 계속하면 위에 적은 여러가지 혈관 합병증들이 나타나게

한스 섬세포(島細胞)의 기능장애에 따른 인슐린의 양과 질적 결함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, 여러가지 호르몬들 사이의 평형이 깨지는 것도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, 혹은 여러가지 몸조직세포의 인슐린 수용체(受容體)의 결함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.

이와같이 당뇨병의 원인은 복잡하여 아직도 분명치 않은 점이 많다. 다만 유전과 관계가 깊다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다. 최근에는 당뇨병을 원인에 따라 분류하여 I형(인슐린 의존형), II형(인슐린 비의존형)

가 되면 당뇨병을 발증시킨다고 여기고 있다.

당뇨병은 범세계적(汎世界的)인 질병이다. 세계 방방곡곡 모든 나라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발병률도 비슷비슷하다. 1979년에 국제당뇨병학회 발표에 따르면 세계인구의 5.6%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. 세계인구를 50억으로 치면 실로 3억이 당뇨병에 걸려 있는 셈이다. 그러나 그 절반만이 당뇨병인줄 알고 있고(顯性糖尿病), 절반은 별반 증세가 없거나 미약하여 모르고 있다(潛在性糖尿病). 우리나라의 당뇨병의 유병률도 이와 비



金應振

울지병원의무원장 <당뇨병클리닉>

면 3년을 넘기기가 쉽지 않았다. 그것은 오늘날처럼 식사요법, 운동요법, 내복혈당강화제, 인슐린요법등 새로운 치료법도 없었거나 당뇨병을 이른 시기에 진단할 수 있는 검사법도 없던 때의 이야기이다.

오늘 날에는 의사가 정해진 치료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당뇨병을 가졌더라도 건강한 보통사람과도 다를없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.

여러 선진국가에는 수많은 당뇨병자가 살고 있으나 거의 모두가 충실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.

당뇨병이 있더라도 올바른 치료를 계속하는 한, 자기 생업을 중단할 필요도 없고 작업량을 제한할 필요도 없다. 뿐만 아니라 결혼생활도 할 수 있고 자식도 가질 수 있는 것이다.

당뇨병이 발견된 것을 기회로 의사와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필요할 검사를 되풀이 해나가는 것이 당뇨병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. 현대 의학을 활용하여 당뇨병을 잘 관리하다 보면 다른 성인병(成人病)도 미연에 방지되기도 한다. 이렇게 하면 당뇨병을 가진 사람이 보통사람 보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수도 있는 것이다.

당뇨병이란 무슨病인가

된다. 인슐린이란 무엇인가. 사람이 살아가려면 필요한 영양분을 음식물로부터 얻고, 이것을 몸안에서 포도당 및 그밖의 것으로 변화시켜가지고 혈액을 통하여 온 몸에 보내준다. 우

릿 기타형(其他型)으로 나누고 있다. I, II형은 유전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종래의 일차성(一二次性, 特發性)당뇨병에 해당하며, 기타형은 다른 질병에 따라 오는 것으로 종래의 이차성(二二次性, 續發性)당뇨병에 해

수하다고 본다. 남한 인구를 4천만으로 잡는다면 그 2~3%인 1백만명 가량이 현성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. 그리고 당뇨병의 유병률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많다. 필자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20세미만에서

식사요법·운동요법·인슐린요법등 꾸준한 治療管理가 무엇보다重要

리 몸의 조직은 이 포도당을 이용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몸안에서의 물질의 전환, 즉 대사(代謝)가 원활하게 행하여지려면 여러가지 호르몬의 작용이 필요하다.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인슐린이다.

인슐린은 뱃통(胃) 뒷쪽에 자리잡고 있는 췌장(膵臟)속의 랑겔한스 섬(島)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진다.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되는 가솔린외에 기계를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는 기름(潤滑油)이 필요하다. 인슐린은 마치 이 기름에 해당되는 것이다. 이런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면 포도당이 아무리 많더라도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.

당뇨병이라는 것은 이 인슐린의 작용이 부족하게 되어 일어나는 대사이상(代謝異常)상태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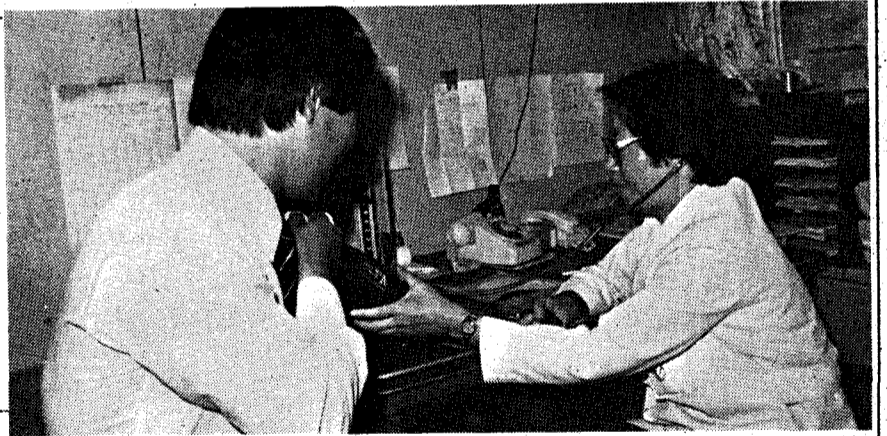
그러면 인슐린작용의 부족은 왜 일어나나, 이것은 현대의학으로도 해결을 못보고 있다. 인슐린을 분비(分泌)하는 랑겔

당한다. 가장 흔히(90%이상) 보는 것이 II형으로 주로 30세 이상의 어른에게 일어나는 당뇨병이다. 이 당뇨병의 발증에는 비만(肥滿) 또는 과식(過食)이 가장 관계가 깊다는 것은 옛날부터 알려져 있다. 당뇨병에 걸리기 쉬운 체질을 가진 사람이 살을 찌거나(肥滿), 혹은 심한 스트레스같은 유인이 첨

는 0.2%이하이나, 20세대 1.6%, 30세대 6.2%, 40세이상 13~16%로,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유병률이 두드러지게 높아진다.

옛날에는 당뇨병에 걸리면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하였다. 사실 그랬었다. 인슐린이 발견되기 전에는(1922년 이전)어른이 당뇨병에 걸리면 10년이상 살기 힘들었고 어린이가 걸리

◆당뇨병이 발견된 것을 기회로 의사와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필요한 검사를 되풀이 해나가는 것이 당뇨병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(사진은記事특정사실과 관련없음).



비만과 과식이 가장 나빠

全休人口의 2~3%가 당뇨병환자

들을 나타내거나, 뒤통기는 망막증(網膜症), 신증(腎症), 심근경색(心筋梗塞), 괴저(壞疽) 및 신경증(神經症)등의 혈관합병증으로 오는 여러가지 증상들을 일으킨다.

당뇨병이 왜 일어나나 하고 묻는다면 "인슐린 작용의 부족으로 일어난다"고 간추려 대답할 수 있다. 인슐린작용이 부족하게 되면 음식물섭취로 몸

成人病協會報 題號 변경을 祝賀 합니다

医療法人 吉病院

이 사 장 李 吉 女
성 인 병 장 徐 舜 圭
연 구 소 장